



우리협회 · 한국방재협회와 방재안전 관련 업무제휴 협약 체결

우리협회와 한국방재협회가 지난 11월15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였다. 우리협회 한경보 회장과 박구준 부회장, 한국방재협회 박경부 회장과 김국일, 김동복 부회장 등이 참석한 협약 체결식에서 박경부 회장은 업무 협약을 통해 양 협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한경보 회장은 대한민국의 방재 및 안전기술 향상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답했다.

한국방재협회는 지난 1999년 설립된 소방방재청 산하 사단법인이다.



동양건설산업 한용수 이사와 진흥기업(주) 강부길 팀장 기술위원으로 위촉



강부길 기술위원의 위촉식

협회는 지난 10월 23일 진흥기업(주) 안전환경팀에 근무 중인 강부길 팀장과 12월 12일 동양건설산업 한용수 이사를 우리협회 기술위원으로 위촉하고 증서를 각각 수여했다.

강부길 기술위원은 1993년 진흥기업(주)에 입사한 이래 잠실지하철현장을 비롯해 당산철교 서해안고속도로현장 등지에서 현장 경력을 쌓은 후, 2001년부터 서울



한용수 기술위원의 위촉식

본사에서 안전환경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한용수 기술위원은 풍부한 공사현장 경험을 섭렵한 국내 최고의 건설 기술을 토대로 현재 동양건설 산업 본사에서 기술영업본부의 임원으로 이론과 현장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술영업 및 BTL, Turn Key, 관 입찰, 민간입찰 등의 수주활동과 실행예산 편성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협회 회원이다.

한경보 회장 강원도 수재 이재민 거주 단지 점검



이재민 주거시설 전경

소방방재청 문원경 청장과 악수하고 있는 한경보 회장

소방방재청 주관 강원도 수재 이재민 동절기 안전대책 관계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이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지난 12월 8일 강원도 평창군 이재민 거주 단지에서 실시되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주택피해를 입은 컨테이너 거주 이재민의 월동대책과 관련해 폭설시 컨테이너 내구력 진단과 전기·가스안전 및 화재예방대책 등과 관련해 우리협회 한경보 회장, 연세대학교 이상호 교수, 대한건축사 강원도 협회 관계자 등 민간 전문가 4명과 방재청 복구지원팀장, 권기환 사무관 등이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주요 점검내용은 겨울철 폭설 및 강풍시 컨테이너 내구력 등 구조적 안전성 점검과 임시주거용 컨테이너의 보온보강 조치 적합성, 동절기 대비 전기·가스 안전 및 화재예방 추진실태, 임시주거 생활불편사항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강구, 향후 주택피해 이

재민 임시주거시설 개선방안 검토 등으로 이루어 졌다.

한경보 회장은 이날 점검을 마치고 소방방재청 문원경 청장 등 관계자에게 불안한 임시구조물은 수재민에게 2차적 피해를 줄 수 있는바 최소한의 정밀 안전검토와 더불어 향후에는 새로운 방식의 수재민 보호 영구시설 구축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단기적으로는 지반, 배수로 관계, 단열재의 열효율 관계와 폭설과 강풍에 대비한 보강과 겨울철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번 전문가 안전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미흡사항에 따른 개선방안을 강구기로 했으며, 2007년에는 주택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설치방안을 마련기로 하는 등 시스템적 준비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80회 건설안전기술사 시험 합격자 협회 방문



제80회 건설안전기술사 합격자 7명이 지난 11월 3일 우리 협회를 방문, 한경보 회장을 비롯해 박구준 부회장, 안태호·안무영 전문위원 등과 관심사에 대한 현안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이번 합격자 가운데는 한화건설 이근포 부사장을 비롯해 동부고속 건설 한용수 이사, 인덕대 송인철 교수 등 학·재계 인사가 합격해 눈길을 끌었다.

합격자들은 수차례의 낙방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불굴의 의지로 합격하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하였는데, 이근포 한화건설 부사장은 “Global Developer가 되기 위해서 기술수준의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 임·직원들에게 자

신감을 부여하기위해 시험에 응시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다”며 소감을 밝히고 기술수준의 향상 없는 일류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며, 기술력 중심의 경영 의지를 밝혔다.

이날 우리협회를 방문한 제80회 건설안전기술사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 |
|---------------------|---------------|
| 한 화 건 설 이근포 부사장 | 동양건설산업 한용수 이사 |
| 대한콘설터트 임병호 감리단장 | 인 덕 대 송인철 교수 |
| 두산중공업 감경호 과장 | KCC건설 김영구 과장 |
| 대한이엔씨 송준민 상무(이상 7명) | |



| 한화건설 이근포 부사장 | 동양건설산업 한용수 이사 | 대한콘설터트 임병호 단장 | 인덕대 송인철 교수 | 두산중공업 감경호 과장 | KCC건설 김영구 과장 | 대한이엔씨 송준민 상무

한경보 회장 세명대서 특강

한경보 회장이 지난 10월 12일 세명대에서 보건안전공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건설안전분야 특강을 하였다.

“사회 저명인사를 통한 특강을 더욱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한경보 회장의 특강을 요청했습니다.” 라고 취지를 밝힌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학과장 하동명 교수는 인성에 바탕을 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보건안전공학과 학생들에게 향후 실무적응에 대비해 현장감있는 교육이 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세명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에서는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과 최근에는 산업위생 분야까지 취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장 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교과과정과 학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세명대의 특징이라 설명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보건안전공학과는 취업에 강한 세명대에서도 가장 우수한 취업 성과를 내고 있어 금년까지 연속 4회 우수취업 학과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수강소감에 대해 2학년 배원철 학생은 “안전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건설안전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했으며, 4학년 최승일 학생은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큰 전략을 얻게 되어 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명대학교는 1991년에 설립된 취업에 강한 종합대학교로 금년도에는 전국 2위의 취업률을 달성하는 등 힘찬 발전을 하고 있는 젊은 대학교이다. 특히 보건안전공학과는 교수와 학생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공심화교육 및 실용교육을 통해 2003년도 94.4%, 2004년도 90%, 2005년도 92.9%, 2006년도 90.2%의 졸업생 취업 성과를 이루었으며, 2005년도 자격증 취득율 4위, 2006년도 자격증 취득율 1위 실적에 이어 2007년도에는 4학년 전원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특강중인 한경보 회장(상)

특강에 앞서 대담을 나누고 있는 세명대 이재익 교수(우리협회 회원)와 하동명 학과장, 한경보 회장(사진 좌로부터)(하)

건설현장 인권보호 차원 환경개선 필요

평당 수천만원대의 고급 아파트가 속속 건설되고 있는 현실에 건설현장의 근로환경은 매우 열악한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노련에 의하면 건설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간이화장실은 매우 불량해 이용할 수 없을 정도의 곳이 많은 등 편의시설 전반이 낙제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안전연대 한기운 회장도 사고사례 중엔 “고층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화장실을 찾다 추락사 한 경우도 있었다”며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설명한다.

건설현장의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관리규정의 미비로도 설명되는데, 현행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샤워실과 휴게실 설치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을 뿐 설치기준이나, 관리기준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풀이된다. 특히, 화장실의 경우는 이러한 기준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최근 노동부에서는 산업보건기

준을 개정하며 사무관리직 노동자의 화장실은 방역에 대한 규칙을 새롭게 제정했지만, 건설현장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건설현장 화장실 개선의 좋은 사례가 있어 화장실 개선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장이 있다. 서울시 송파구 장지지구의 일성건설 현장이 바로 그곳인데 이곳 현장의 전진철 현장소장은 거품을 발생시켜 냄새를 제거하는 포세식 화장실을 설치해 환경을 개선한 사례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설치비용 1,200여만 원으로 남자용 5개, 여자용 1개 등 화장실 모두에 좌변기를 설치했으며, 이동이 가능하고 오래 쓸 수 있어 좋고, 한달 유지비 또한 6만5,000원으로 소독을 포함한 모든 관리가 가능하다” 고 말한다. 공원에 설치된 포세식 화장실을 보고 이를 현장에 도입했다며 도입 후 효과가 좋아 다른 현장에도 적극 추천한다고 밝혔다.



일성건설 장지지구 현장의 포세식 화장실

일성건설에서 시공 중인 장지지구 11단지 아파트 현장을 방문한 한경보 회장(전진철 현장소장, 한경보 회장, 일성건설 이영철 공사과장 사진 좌로부터)

7월부터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이 있어야

7월부터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조종작업은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만이 할 수 있고, 5톤 이상 무인타워크레인도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이 있어야 조종할 수 있다. 또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도 「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노동부는 지난 11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2007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조종작업은 지금까지 「기중기운전기능사」가 수행하였으나 7월 1일부터는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05.11월 신설)」자격이 있어야만 된다.

현대건설 기술세미나 2006 행사 성대히 열려



현대건설 기술세미나 2006행사가 10월 24일 르네상스 서울 호텔에서 현대건설 이종수 사장과 임직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량, 항만/수자원, 지반, 건축 등 4Session으로 성대히 진행되었다.

현대건설 이영남 전무의 개회사에 이어 서울대학교 장승필 교수의 축사와 현대건설 이종수 사장의 환영사에 이어 일본 Kochi University of Technology의 Shunji Kusayanagi 교수의 특별강연으로 진행된 1부와 Technical Session과 Discussion 등 2부 순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 축사에서 서울대 장승필 교수는 '한국 경제발전을 선도해 온 현대건설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건설발전에 선봉장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발전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현대건설 이종수 사장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해온 건설산업과 현대건설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건설 사관학교로서의 현대건설에 대해 강조 하였으며, 급변하는 국내·외 건설산업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

현대건설 기술세미나
2006 행사장

현대건설 이종수
사장의 환영사



를 위해서는 산·학·연·관 모두가 협력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 말하고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개최한 이날 세미나를 통해 건설산업의 기술개발과 교류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현대건설은 앞으로도 기술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특별강연에서 Shunji Kusayanagi 교수는 일본 건설산업의 문제점과 동향에 대한 발표로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는데, 이날 있었던 세미나의 Session별 좌장은 다음과 같다.

- 항만/수자원 : 한양대학교 조용식 교수
- 지 반 : 고려대학교 이우진 교수
- 건 축 : 건국대학교 김한수 교수

풍림산업 손석헌 소장 대한주택공사 격려상 2회 연속 수상

지난 2006년 1월 26일 대한주택공사 부천여월사업단장으로부터 격려패를 수상한 바 있는 풍림산업 손석헌 소장(대한주택공사 부천여월 B-2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현장)이 지난 2006년 11월 1일에 대한주택공사 한행수 사장으로부터 격려장을 수상해 2회 연속 격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84Type 386세대, 75Type 29세대아파트 6개동(12~15층) 415세대 및 부대시설이 들어서는 이 현장은 2005년 7월 착공해 2007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아파트 지붕층 골조 완료, 방바닥 미장 5개 층 완료, 조적공사 10층 완료, 벽체 미장 공사 8층 완료, 지층배관 및 입상배관 10층 완료된 상태이고 우수수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현장이다.

건설안전 기술사이자 건축시공 기술사인 손석헌 소장은 1979년 풍림산업에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고집으로 살고 있는 우리협회 회원으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풍림 인으로 정기적인 불우이웃 돕기를 남몰래 하고 있으며, 인간관계도 좋아 현장에서 근무하는 풍림산업 직원은 물론 근로자 생일도 직접 챙겨주는 따뜻한 마음을



풍림산업 및 협력업체 직원들과 공정 협의 중인 손석헌 소장

소유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이곳 현장에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한 근로자 관리를 위한 안전시설물과 이 연구·적용시켰으며 품질향상을 위한 전사적 노력과 Kick off Meeting등의 실시로 협력업체 관리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2회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손석헌 소장은 '풍림산업의 사훈인 사랑으로 화합하는 정신을 실천해 근로자 개개인을 대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근로자 모두는 소중한 사람이기에 인간존중 사상이 기본이라고 강조하며 2회 연속 격려상 수상 소감을 밝혔다.



시공중인 아파트를 점검하고 있는 풍림산업 손석헌 소장
2006년 12월7일 현재 공정



행정도시 첫마을 국제공모 당선작 전시회 개최



| 지난 11월 5째주 서울역에서의 전시회

9개 지역에서 행정도시 첫 마을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의 순회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행정도시 기본계획 소개와 지난 9월 1일 설계경기 당선작으로 발표된 1등, 2등, 3등 작품과 장려상 2작품이 전시되었으며, 전시장소는 정부청사(중앙, 과천, 대전), 충북도청 등 공공청사와 서울역, 대전역 등 인지도가 있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공공장소로 하여 국민들의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행정도시 현지에서는 이미 지난 11월 1일부터 건설청 홍보관에 당선작품을 전시하여 방문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전시장소와의 연계전시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전시회 개최와 동시에 당선작품들의 개요와 설계경기 행사 전반에 대한 자료들을 종합한 설계경기 작품집을 발간하여 공공기관, 대학교, 관련학회 등에 배포하여 앞으로 도시개발 구상 등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첫마을 사업은 당선작을 토대로 개발구상안을 마련하여 추진의 심의 등을 거쳐 11월말에 확정된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올해 6월 실시계획이 확정되면 7월에 착공된다. 사업규모는 전체 7천세대로 1단계 2,600세대와 2단계 4,400세대를 구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게 되는데, 도시기능 도입시기 및 광역기반시설의 이용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1단계로 주택 2,600세대를 건설·공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첫마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주택공사는 올해초에 현지 사업단을 개소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사업단개소를 위한 개소준비 작업반을 구성하여 지난 12월 6일부터 건설청내에서 업무를 개시하였다. 개소 준비단은 우선 첫마을 홍보관 건립, 사업단 사무소 건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첫마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韓行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11월 1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수도권과 대전, 청주 등 5개 도시

서울천연동 주공 뜨란채 2006년 한국콘크리트학회 작품상 수상!

대한주택공사(사장 한행수)의 『서울천연동 주공 뜨란채』가 한국콘크리트학회로부터 창의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아 올해의 우수 작품상으로 선정되었다.

『서울천연동 주공 뜨란채』는 금화시민아파트를 헐고 새로 지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급경사지임에도 불구하고 계단식 주동배치와 공중정원, 테라스 하우스 계획 등 우수한 설계와 빼어난 외관미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에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 조망권과 북악산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웰빙·친환경 명품단지로 그 작품성을 높이 평가 받은 것으로 보인다.

주공은 작년도 기술상 수상에 이어 올해 작품상 수상으로 공사의 건설기술의 우수성은 물론 고품격의 작품성까지 인정받아 최고의 주택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 받게 되었다.

주공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친환경단지 조성을 통해 국내 주거문화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